

DACA 12주년 기념, 우리센터 주최 펜주 이민자단체 능기 워크숍 진행

청소년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시행 12주년을 맞아 우리센터는 지난 15일 (토) MILPA (펜실베이니아 이민자 리더 운동) 및 새이민자보호운동 (New Sanctuary Movement) 등과 능기제작 워크숍을 진행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노스 필리의 홀리 이노센트 교회 (Holy Innocent Church)에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 다양한 연령과 인종의 참가자 60여명이 약 40개의 능기를

함께 제작했다. 참가자들은 "Defend DACA"(DACA를 지켜라), "Home is Here"(우리 집은 여기입니다)와 같이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와, "Driver's Licenses is for all"(운전면허증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등 펜주 모든 주민들의 운전면허증 신청비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능기에 담았다. 특히 어린이 참가자들의 "My dad is my superhero"(아빠는 나의 수퍼히어로입니다), "We are human beings too"(우리도 사람입니다)"라는 문구와 그림이 눈길을 끌었다.

우리센터의 제이미 서 이민정의 펠로우스는 "펜실베이니아에는 170,000명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DACA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추방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 "능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깃발로서, 축제, 집회 및 의식과 같은 문화적 활동을 주도해온 역사가 있다. 식민지와 정치적 억압 시기에는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저항의 상징으로

도 역할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미국 사회 다양한 참가자들과 함께 능기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담고 싶었다"며 행사 기획의도를 밝혔다.

20대 라틴계 참가자인 제임스씨는 능기 디자인에 대해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다민족의 단결로 이루어진 이 나라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팀은 능기를 통해 고통과 아픔이 아닌 평화와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능기 제작 외에도 한국과 라틴계 음식



15일 우리센터가 주최한 능기제작 워크숍-우리센터 제공

을 나누고, BTS 음악에 춤을 추는 등, 행사는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한 어린이 참가자들은 성인 참가자를 들어올리는 액티비티를 통해 여럿이 힘을 모으면 힘든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체험했으며, 참가자들은 "이민자로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 안의 수퍼히어로를 찾아보자"와 같은 화두로 의미있는 대화를 공유했다.

우리센터는 2018년에 설립된 풀뿌리 비영리단체로, 사회적, 경제적, 인종적 정의를 위해 한인 및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힘을 기르고 옹호한다. 이민자정의, 시민참여, 커뮤니티 서비스, 청소년리더십, 문화예술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최근 이민자, 서류미비 이민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구성원, 여성, 연장자, LGBTQ+,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커뮤니티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